

# 법화행자 태허당 홍선 스님

## 독립운동가...방송포교로 시대를 앞섰던 선각

### 관음종 학술대회

#### 개산조 삶과 사상 조망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11월 1일 태허 스님 탄신 105주년을 기념해 (태허조사 일대사인록(一大事因緣)을 말한다)를 펴냈다. 또 이날 총본산인 서울 송인동 묘각사에서 '관음종 개산조 태허당 홍선 스님 조망 학술대회'를 열었다.

홍파 스님,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신규탁·강찬국 연세대 교수, 김선근·김용표·고영섭·오형근·김광식 동국대 교수, 최봉수 서울불교문화대학 교수,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 최기표 금강대 교수, 양승규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태허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과 불교개혁가, 포교사로서의 스님의 발자취를 살폈다.



고희(古稀)의 태허 스님(1975년)

#### 생애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태허 스님은 1904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지금의 조계사인 각황사 뒤에서 포복상의 아들로 태어났다. 주체의식이 강했던 태허 스님은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다 경성예비고등전문학교에서 수학하며 신학문을 접했다. 스님은 이때부터 반일의를 키웠다.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 일본군의 앞잡이 역할을 한 인물들을 제압하는 등 독립투사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태허 스님은 각황사에 초빙된 선암사 경운 스님(1852~1936)의 설법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당시 조선불교 선교양종 교정으로 있던 경운 스님을 은사로 26살 때인 1930년에 출가했다. 이듬해에 일본 게이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일요일에는 도쿄 남동쪽에 자리한 일본 8대 종단 중 하나인 일련종 대본산 혼몬지(本門寺)를 찾아 법화사상에 대한 설법과 강의를 경청했다.

태허 스님은 유학시절 피압박민족으로서의 자각과 독립 의식을 강하게 싹틔웠다. 도쿄 시내에 권투클럽과 검도클럽을 세우고 나라를 떠난 동포들에게 '조국'의 관념을 심어줬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감시에 걸려 중국으로 향했다.

상하이로 건너간 태허 스님은 임시정부에서 활약하며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스님은 상해와 서울을 오가며 임시정부의 자금을 운반했다. 상하이 시내에 권투클럽을 개관해 독립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온 태허 스님은 명동에 최초의 신식 다방인 '맥시코'를 열고 지식인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집회장소를 제공하며 독립군 훈련비 자금을 지원했다.

#### 불입종 설립에 불교 대중화에 헌신

태허 스님은 세수 36세 때인 1940년 서울 낙산에 묘각사를 창건했으며, 1960년부터 6년간 경성 북도 상주 백화암에서 6년간 수행했다. 당시 한국 불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사찰령 등으로 종단이라는 위상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스님은 당시 불교계의 문제점을 △법통이 사라진 채 지도자 없이 개인적 신앙으로 전락 △새 시대의 감각과 현재 민중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한 점 등을 짚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스님은 1957년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일승불교현회'를 설립해 스님들의 수행과 대중생활을 지도했다. 스님은 혼돈스러운 사회상황에서 종교의 정신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1958년부터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설법을 나섰다. 또한 중앙방송 전신인 라디오서울에 신앙강좌를 열어

대중포교에 진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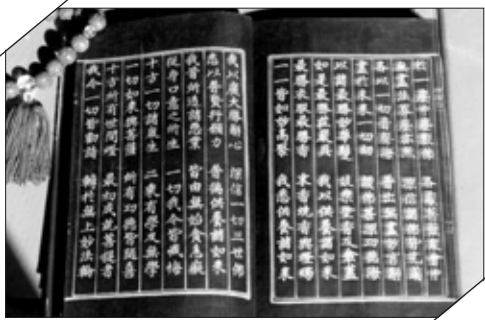
이후 1965년 태허 스님은 '대한불교 불입종'을 문교부에 등록하고 종정에 취임했다. 승려 중심의 종단이 아니라 '승속 혼연일체가 되는 종도대중의 종단'을 역설했다. 1970년에는 불교잡지인 월간 <법성>을 창간해 글을 쓰고 강론하며 불교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헌신했다. 태허 스님 임직 후 불입종은 중명을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바꾸고 새로운 불교종단으로 탈바꿈을 시도했다.

#### 태허 스님의 법화사상

태허 스님은 <법화경>을 종단의 소의경전으로 정하고 수행의 기본으로 삼았다. 스님이 처음 발심할 때 깊이 체득했던 <천수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불입종 창종 후에는 <법화경>의 '대비진주'로 대체해 열불 주력 삼매에 들었다.



태허 스님의 친필인 법화 삼부경(1975년)



태허 스님의 은사인 경운 스님의 친필 금자 화염경

태허 스님은 <법화경> 교리에 입각해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고 실천적 삶을 살아가 노력했다. 스님은 '묘법연화경에 귀의하나다'라는 대비주를 통해 법과 해석의 중심인 계승자가 되고자 했다. 그는 제법실상을 살하는 이 경전이 제법의 법문이고 불법의 대강임을 확신시켜 주려 했다. 태허 스님은 법화행자의 삶 속에서 법화사상에 대비주를 독송해 왔을 뿐 아니라 종도들에게 독송을 권장해 왔다.

#### 관음종, 종조 연구 본격화

태허 스님의 업적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통해 희망의 등불이 됐다는 데 있다. 또한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켜내면서 치열한 구도 수행자로 산 스님은 시대를 앞서는 전법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홍파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태허 스님이 종단 건립을 위해 기록한 <해동전태법화법백소고>의 친필유고를 소개했다. 홍파 스님은 "한국불교의 전통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당시의 불교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전하고 있다"며 "주요 종단에 걸추어 대한불교관음종의 종조와 종지 및 종풍에 대한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관음종 역시 주요종단으로서 종조와 종지, 종풍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술대회에 앞서 봉행된 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등 교계 주요인사들과 박진 국회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너는 기자

## 일본불교 통해 한국불교를 본다

### 불교학연구회 '일본불교의 기원·토착화·영향'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가)는 11월 13일 오전 9시 한국외대 대학원 1층 브릭스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일본불교의 기원·토착화·영향'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불교의 이해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특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회에서는 일본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일본을 고대·중세·근대·현대로 나누어 전문 학자들이 전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일본학계의 대표 학자인 기무라 기요타카(쓰루미 대학 총장)가 '일본불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주제발표는 스미야마 교수(일본 류코우 대학)의 '고대의 한일 불교관계' △미노와 겐로 교수(동경대)의 '일본천태종과 가마쿠라 신불교' △원영상 연구교수(동국대)의 '메이지 유신과 불교계의 동향' 스미야마 선임연구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의 '서구에 끼친 일본불교의 영향' 등으로 진행된다.

일본학계의 대표학자인 기무라 기요타카 총장은 강연에서 일본불교가 갖고 있는 대승불교로서의 보편성을 소개한다. 또한 6세기 삼국으로부터 불교를 전래받아 12세기 토착화되면서 생겨난 정토종, 일련종 등 다양한 종파들이 장래 문화 등 일본의 민속 요소와 결합하면서 나타난 일본 불교의 특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광준 교수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가 일본불교에 준 영향에 대해 고찰한다.

원영상 연구교수(동국대)는 메이지유신 시기에 일본불교가 스스로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불교혁신을 도모한 과정을 살핀다.

이민용 선임연구원은 일본불교가 2차세계대전말까지 일본제국주의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사쿠쇼엔과 스즈키의 선사상이 서구사상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조명한다.

분가 스님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일본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 '종교교사 양성과정' 학술대회

### 한국종교교육학회, 12일 수원대서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12일 수원대 종합강의동에서 '종교교사 양성과정과 종교교재 연구 및 지도법'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틴 피터마이아(청신국제중고등학교 교사)의 '현대교육에서의 종교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범석 경희대 교수의 '종교학교 종교교재의 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재일 선문대 교수의 '종교교과 수업모형에 따른 수업사례연구' △윤재근 대진대 교수의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다원적 접근' △김귀성 원광대 교수의 '종교와 교수-학습 원리와 교수법 사례'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종교교재의 영성지향 평가 모형'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김용표 회장은 "최근 종합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 교육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각 종단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양성과 교육과정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지침이 될 수 있는 종교교재 연구 및 지도방법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 큰 지혜로 큰 세상을 열어라

더 큰 세상을 이끄는 불교지도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더 큰 지혜를 깨우치십시오

## 2011학년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야간)

■ 모집학과 및 인원	
학 과	불교
전 공	불교학, 선학
모집인원	00명

■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0. 11. 8(월) ~ 26(금)	● 본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또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방문 접수
전형일 및 장소	2010. 12. 4(토) 10:00 ~	●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자 또는 2011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졸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중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도자과정	● 각 불교 종단의 스님 ● 각 신불단체의 임직원 또는 신심이 돈독한 불자로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자

■ 특 전	
●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취득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생사외래전공 석사학위취득자 또는 지도자과정(4학기수료) 수료자는 총장명의로 상제에서 인중 응시자격 부여 및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함.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직승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불교인간인문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본 대학과 출신자 장학 시 입학금 면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 TEL 02-2260-3096, 3097 ● FAX 02-2260-8627 ● http://gsbs.dongguk.edu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 전용 스피커

● 특징 : 저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편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상차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